



이동국·박주영 베어벡호 승선

내달 2일 네덜란드와 친선경기 대비
예비대표 32명 확정...안정환은 탈락

부상으로 2006 독일 월드컵 참가까지 포기했던 '라이언킹' 이동국(27·미들즈브러)이 약 15개월 만에 다시 대표팀에 발탁됐다. 박주영(22·FC서울)도 베어벡호에 재승선했다.

하지만 소속팀에서조차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안정환(31·수원)은 제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네덜란드와 친선경기에 출전할 국가대표팀 예비명단 32명을 확정, 22일 발표했다.

필 베퍼벡 감독은 23일 프로축구 컵대회와 이번 주말 K-리그를 통해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한 뒤 다음 주 중 최종 명단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랜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된 이동국이다.

이동국이 대표팀에서 뛴 건 지난해 3월 1일 서울에서 치른 안골라와 친선경기가 마지막이었다. 이동국은 지난해 4월 K-리그 경기 도중 무릎을 다쳐 수술대에 올랐고, 결국 독일 월드컵 최종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지난 3월 우루과이와 평가전 예비명단에

포함됐다.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박주영도 다시 A대표팀에 뽑혔다.

박주영은 지난 2월 예멘과 2008 베이징 올림픽 2차예선에서 일명 '배치기 반칙'으로 퇴장당하며 출전 금지 징계를 당해 그동안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빠졌었다.

최근 한달 넘게 왼쪽 발등 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떠나 있다. 지난 20일 부산 아이파크전을 통해 복귀, 풀타임을 뛰면서 부활을 알리 베퍼벡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골키퍼 이운재(수원)도 지난해 9월 대만과 아시안컵 예선 이후 8개월 여 만에 베어벡호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독일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서 제외돼 온 안정환은 이번에도 예비 명단조차 들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 몸이 최고”

22일 오후 중앙대학교 루이스홀에서 열린 고교·대학부 보디빌딩대회에서 대학부 웰터급에 출전한 선수들이 근육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프리미어리그는 나만의 무기 필요”

■ 박지성 기자회견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려면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다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훈련 중인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프리미어리그 진출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실력’을 강조했다.

박지성은 22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30층 나이기코리아 쇼룸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실력이다. 실력만 있다면 적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리미어리그는 단지 공격과 수비 전환이 빠르고 체력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포진

해 거칠다는 특성이 있지만 몇 개월 적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온다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성은 “자신의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특기가 없다는 것이 특기”라고 웃으며 말한 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내가 가진 장점이다. 공간을 잘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능력이 내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솔직하게 재활훈련은 하고 싶지 않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훈련 중 하나”라며 “하지만 다시 전과 같은 몸을 만들어 그라운드에서 뛰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담담하게 재활 과정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안방서 유종의 미 거두겠다”

프로축구 광주상무가 23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삼성 하우젠 컵 최종전 1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B조 3위인 광주는 승점 11점으로 2위 수원(승점 14)에 3점차로 뒤져있지만, 골 득실차에서 10점 이상이나 벌어져 이번 경기를 이기더라도 사실상 플레이 오프 진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광주는 현재 리그컵 12게임 가운데 통합순위 6위에 올라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이번 최종전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올림픽 대표팀에서 복귀한 김승용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우고, 개인 한 시즌 최다골에 도전하고 있는 남궁도을 중앙 공격수로, 여승원과 고창현은 양 윙 포워드로 배치, 전력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승리를 위해선 대전 ‘용병’ 데닐손은 경계대상이다. 최근 대전과의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중인 광주는 데닐손에게만 3점을 내줄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수원 삼성은 ‘골재’ 경남FC와 최종전을 치르고, A조에선 울산 현대가 플레이오프 4강에 오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축구 컵대회 최종 10R
오늘 오후 7시 대전과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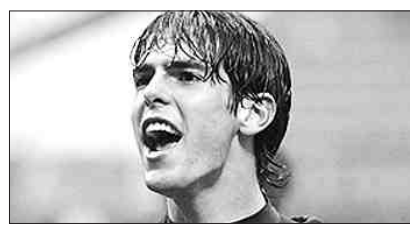
주와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

컵 대회에서 4승4무1패(승점 16·골득실 +5)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은 3위 대구(4승1무4패·승점13)와 승점 차를 3점으로 벌려 놓은만큼 제주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하지만 울산은 플레이오프 6강 진출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태세다. 1위 인천(승점 18)과 승점 2점차 밖에 나지 않아 내심 제주전에서 승리하고 조 1위로 플레이오프 4강에 오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럽축구 지존 가리자”

24일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AC 밀란 카카



리버풀 제라드



2년 전 터키 이스탄불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리버풀(잉글랜드)과 AC밀란(이탈리아)이 ‘꿈의 무대’ 결승에서 다시 만났다.

리버풀과 AC밀란은 24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우승컵을 놓고 충돌한다.

역대 대회 성적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두 팀 모두 화려하다.

일곱번째 결승에 오른 리버풀은 과거 다섯 차례나 챔피언이 됐다. 리버풀이 결승에 올라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건 유벤투스(이탈리아)에 0-1로 무릎 꿇은 1984~1985 시즌이 유일하다.

AC밀란이 결승에 오른 건 이번이 열한 번째다.

AC밀란은 과거 10차례 결승에서 6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9회)에 이어 두번째다.

리버풀과 AC밀란은 이스탄불에서 열린 2004~2005 시즌 대회 결승에서도 맞붙었다. 당시 경기는 1955~1956 시즌 출범한 이 대회의 50여 년 역사에서 손꼽힐 만큼의 명승부였다.

연장까지 3-3으로 비긴 리버풀은 결국 승부차기에서 폴란드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예지 두덕의 선방으로 3-2로 승리하며 거적 같은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2002~2003 시즌이 마지막 우승이었던 AC밀란은 단단히 설움을 버리고 있다. 미드필더에도 이번 대회 10골로 득점왕을 예약한 카카에게 기대가 크다.

리버풀은 역시 경험이 풍부한 공·수의 핵 제라드가 승부의 키를 쥐고 있다.

한편 ‘축구황제’ 펠레(67)는 22일 영국 대중지 ‘더 산’과 인터뷰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AC밀란의 우승을 점쳤다.

그러나 그동안 펠레의 예언은 대부분 빗나가 ‘저주’로까지 불렸기 때문에 AC밀란으로서 그다지 답답지마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3일(수)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14 : 10·KBS

- 1) ▲국제에어로빅(15 : 00·KBC)
▲프로야구(SK·삼성)(17 : 40·KBSN Sports), (LG·두산)(18 : 2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니혼햄·요미우리)(18 : 00·MBC ESPN)
- ▲AFC 챔피언스리그 축구(성남 일화-산둥루닝)(18 : 50·Xports) 24일(목)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리버풀-AC밀란)(03 : 30·MBC ESPN)

2007년 10월 28일 시험 확정!!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격 가능

신바람 공인중개사CD

공인중개사 18회 시험 합격 해법!

합격을 책임질 명강의, 명강사

유명 강사의 현강강의는 강의로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윌러는 꼭 자격증을 취득하십시오.

해법1 **족집게 강의만이 속성 합격의 지름길!**
제 14회 공인중개사 수석 합격 및 노량진 학원가의 명성 그대로 전국최대 합격생을 배출한 최광익이 합격의 비결을 전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출제경향을 꼭꼭 잡아내는 족집게 강의만의 명강의만 있었습니까.

해법2 **핵심내용의 반복만이 초심자 합격의 지름길!**
40점 과락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핵심내용만을 계속 반복하면 수석은 아니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핵심내용의 반복! CD 동영상 강의는 언제라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학습 가능합니다.

해법3 **초심자 눈높이 강의만이 교과완정정복의 지름길!**
강의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작해서, 눈높이에 맞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강의 실력이 쏙쏙 올라가면서, 지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 중고 CD 보낼시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4동 807-5 개인빌딩 103호 (주)나래디앤피 TEL : 021392-0972

시간절약, 금전절약의 황금천사
족집게강의 동영상CD 세트 39장

385,000원
126,000원

특혜사은품
기출문제(12~16회) CD 증정

- 민법 및 민사특별법 CD 5장
- 부동산개론 CD 6장
- 부동산공법 CD 10장
- 2개월 분의 학원강의 수록
- 1개월이던 완전 마스터 가능
- 부동산 공시법 CD 5장
- 중개법령 및 실무 CD 6장
- 부동산 세법 CD 5장
- CD 1강좌 40분 강의
- ※ 교재 필요시 별도 구매 가능

●국민은행 / 예금주: 스미일 / 계좌번호: 417201-01-145079 ●라켓 카드 결제 가능
연중 무료상담전화: 080-466-3030

●소자본 개업 가능 ●조기 명예퇴직·전직대비 ●여성의 경제적 독립기회 ●고소득 자유 직업

글로벌시대 요즘 뜨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필수!!

중국어+일본어+영어=125,000원 ⇒ **99,000원** (교재는 별도)

완전 100% 확률강의식 동영상 강의
신바람 업그레이드 강좌 영어회화

동영상강의 CD
38,000원 ※교재는 별도

중국어에 잘하는 방법!
요즘 중국어가 뜨고 있죠?

동영상강의 CD
48,000원 ※교재는 별도

일본어를 배우려면
9가지의 벽을 넘으면 일본어 끝!

동영상강의 CD
39,000원 ※교재는 별도

완전 100% 확률강의식 동영상 강의의 신바람 업그레이드 강좌 영어회화

1단계 : Listening CD강의 내용을 면밀히 듣는다.(5회)
2단계 : Repeating 원어만 듣고 따라한다.(10회)
3단계 : Simultaneous Language Learning 원어의 녹음소리와 동시에 말한다.(10회)
4단계 : Role Playing 상대편과 역할이 가며 말한다.(2회)
5단계 : Conversing 외국인 또는 친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한다.(2회)

중국어에 잘하는 방법!

우선 중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음과 성조입니다.
성조를 잘하는 방법!

- 음운으로 공부하세요.
- 성조를 온 몸으로 표현하면서 크게 말하십시오.
- 병음과 성조는 충분히 익히십시오.
- 가능한 성조배열에는 1:1로 동영상강의로 개인수업 받으십시오.
- 성조를 정확하게 체크가 가능해야 합니다.
- 성조를 배울때는 동영상 강의로 100% 활용하세요.
- 아예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성조를 읽으면서 녹음하고 동영상강의 선생님 강의로 교정받으세요.

일본어를 배우려면

첫째, 히라가나라는 일본문자이며 둘째, 암기할 단어 셋째,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넷째, 조사와 부사 등의 문법적 요소 다섯째, 1945년 이후의 상황하차 여섯째, 일본의 관용표현 일곱째, 존경어 여덟째, 1945년 이후의 상용한자를 펜으로 직접 쓰기 아홉째, 작문

인터넷 쇼핑몰 **www.itscom.co.kr** NAVER 통합검색 이츠컴 검색

●공급원 : (주)나래디앤피 ●국민은행 / 예금주: 스미일 / 계좌번호: 417201-01-145079
24시간 무료상담전화: 080-466-3030 (일요일, 공휴일 상담가능)